다락방 모임 나눔지 (9/13 주간)

견고한 약속, 확실한 미래 (창 15:1-21)

일상 나눔	**한 주간의 삶을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물어 보세요.**
찬송 하기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본문 읽기	**창세기 15:1-21**

오늘 큰 승리를 거둔 아브람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그를 하늘로 끌어 올려 별과 같은 자손을 약속하시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횃불 언약으로 확증해 주십니다.

1. 하늘의 차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약속 : 별과 같은 자손

아브람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이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합니다. 1) 먼저,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마겐)요"(15:1). 앞선 전쟁터에서 아브람에게 "대적을..손에 붙이신(미겐)"(14:20)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직접 아브람에게 내가 너의 방패(마겐)라 하신 겁니다. 2) 둘째,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십니다. 상급(사카르)은 군사 작전을 수행한 충성된 군사들에게 왕이 내리는 '하사품'입니다. 소돔왕의 전리품을 거부한 그에게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상급으로 주십니다.

그러자 아브람은 속에 담고 있던 고민을 꺼냅니다. "하나님, 저에게 상급을 주셔도 저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집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아브람이 다시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그 말을 가로채서,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십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아브람에게 시청각 교육을 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5절).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은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다는 것과 더불어 그의 후손들이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단 12:3). 하나님의 약속에 아브람이 '아멘'(아만)하자, 하나님은 아브람을 '의롭다' 여기십니다(6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아브람을 (환상 중에) 하늘로 끌어 올려서 별들을 보여주셨다고 해석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관점이 땅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성공과 성취를 거두어도 두려움과 흔들림이 찾아옵니다. 우리 관점이 땅만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선이 하늘의 차원으로 높이 올라가면 다르게 보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로서(엡 2:6), 성령으로 보증된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고후 1:20).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굳게 세우고 담대하게 합니다. 우리도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하며 굳게 서는, 별과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2. 미래를 보고 세대를 잇는 하나님의 약속 : 땅과 후손

아브람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은 땅에 대한 약속을 확증하십니다.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이끌어 낸 여호와니라"(7절). "나는...이다"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자기 선언입니다. 그때 아브람은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라며 하나님께 보증을 요구합니다.

아브람의 요구에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심으로 약속을 보증하시며, 아브람의 미래를 예언적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너는 알라'며 그의 후손들은 이방 나라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다가 "사대 만에"(1세대=100년 계산)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400년 후 있을 출애굽 사건). 이어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여기서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만약 이 언약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 자신이 쪼개진 짐승의 운명이 될 것이라 맹세를 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하심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강에서 큰 강 유브라데 까지 (당시 아브람이 경험했던 모든 세계를 의미), 땅에 대한 약속도 보증하시며, 그의 자손들이 오는 세상을 기업으로 상속할 것이라는 궁극적

미래를 말씀합니다. 아브람에게 주신 이 언약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모든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가 만물의 상속자가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히 차지하는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 정도 제한된 삶을 살다가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십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의 현실과 결과만 보지만, 하나님은 지금의 우리와 우리를 통해 이어질 후손들의 미래까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400년이 후의 미래를 살짝 보여주신 이유는, 그에게 하신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졌고 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고난과 역경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말씀의 눈으로 더 먼 미래를 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복된 인생을 살지, 그것을 위해 나는 어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지 생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역사의 굴곡과 시대의 격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변함없는 약속과 미래를 보고, 오늘을 흔들림없이 담대히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나눔 포인트

1.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브람에게 어떤 두려움과 고민이 있습니까?(1-3절)

1. 이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2.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3.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2. 두려워하는 아브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4-5절)
아브람의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모범이 됩니까?(5-6절)

4.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3.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또 무엇을 약속하십니까?(7, 18-21절) 그 약속을 어떻게 보증하십니까?(9-11, 17절)

7.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니라 /
18.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19.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20.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21.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
9.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삼 년 된 암소와 삼 년 된 암염소와 삼 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10.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1.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
17.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4.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보여주신 미래가 무엇입니까?(13-16절)
우리가 미래에 대해 알 수 없는 것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3.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14.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5.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 네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합심 기도	**말씀을 기억하며 / 후원 선교사님과 미자립교회를 위해 / 다락방과 교회를 위해**
모임 마무리	**광고 /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 주기도문**